

대신총회를 회복하며

대신 총회 핵심가치 및 목적 사명 비전 선언문

| 예수한국 복음통일 땅끝선교를 3대 핵심으로 만들다



로고 설명 :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구와 아름다운 이땅 대한민국을
우리 대신의 품에
안아야 하는 사명을 나타냅니다.

대신 총회 핵심가치 및 목적 사명 비전 선언문

대신 총회는 고봉 김치선목사의 신학 정신과 영혼 구령 운동에 근거하여 교단의 역사, 신학, 이만팔천 동네에 가서 우물을 파라는 개척정신인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땅끝 선교를 계승한다.
또 한 대신 총회는 21세기에 맞는 교단 조직, 교육, 선교, 인재양성, 사회적 리더와 사회의 모범과 변화를 선도하며 지 교회들의 자립기반을 든든히 하여 주님이 위임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대신 총회의 핵심가치

대신 총회는 1961년 설립된 이후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땅끝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된 일군(목회자, 학자, 전문가)을 세워 교단 설립자 고봉 김치선 목사의 정신인 이만팔천 동네에 교회(행 20:28)를 세우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준비된 거룩한 공교회를 세워 신학과 복음 선교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선도하며 함께하는 것을 핵심가치로 한다

* 목적선언문

대신 총회는 주님께서 마지막 위임 명령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을 받았기에 이 명령을 실천하여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땅끝 선교를 위한 충성된 일군(목회자, 선교사, 학자, 전문가)을 양성하



▲ 제45회 정기총회 모습 사진=대신총회 홈페이지제공

며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마 16:18, 행 20:28)를 세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된 교단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사명선언문

대신 총회는 주님께서 위임과 명령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을 사명으로 받았기에 개인, 교회가 실천 하여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땅끝 선교를 위하여 충성 된 일군인 목사, 선교사, 학자, 사회를 선도 해 갈 인재 양성을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마 16:18, 행 20: 28) 더 위에 교회를 세우고, 훈련하여 또 다른 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교회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 비전선언문

대신 총회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

시며 마지막 위임 하시고 명령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을 받은 교단으로서 이 명령을 실천하여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땅끝 선교를 감당할 충성된 목회자, 선교사, 탁월한 학자, 세상을 선도할 전문가를 양성하여 마태복음 16장 18절과 사도행전 20장 28절의 거룩한 공교회를 세워 복음으로 택한 자를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 사단법인 목적 변경

1.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다음세대를 책임져야 할 국민, 아동, 청소년, 청년 대학생, 다문화, 새터민, 외국인 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한다.
2. 국내의 각 위기가정과 취약계층을 위한 상담, 보호, 치료, 학습, 급식, 법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

3.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위기가정(해제위기, 이혼위기, 실직, 재해로 인한 긴급위기) 등에 대한 긴급구조, 지원, 상담, 보호, 국가 또는 사회 각 단체와의 연결사업을 한다.
4. 회원으로 가입된 개인, 단체, 기관, 시설, 기타 사회단체 등의 신체, 재산, 권익, 인권, 사상, 종교, 문화, 인종 등의 포괄적인 보호와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가의 헌법 가치 아래에서 평등과 자유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국민의식을 고취시키는 사업을 한다.
5. 법인의 발전과 사회와 국가에 공헌을 하도록 평생교육과 교육장 및 복지시설운영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보급, 연계, 교육(자격증, 보수교육, 기타), 각종 재능 및 인재발굴과 양성을 하는 공헌사업을 한다.

우인식기자

주요 장로교단 총회... 동성에 관련 현의안 '눈길'

예장 통합·합동서 집중 논의 전망



▲ 과거 제46회기 기흥 페밀리콘도 대신총회 모습

"취어신학, 이단으로 결의해 달라"

그 중심에 예장 통합 측이 있다. 이미 지난 102회 총회 때부터 '동성과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동성애자와 동성애 동조자 및 옹호자의 교단 신학교 입학 금지'를 결의했었다.
특히 지난해 제103회 총회에서 '동성에 행위자, 동성에 행위를 조장하거나 교육하는 자는 교단 목사고시를 치르지 못하도록' 결의했는데, 올해 목사고시에서 이런 혐의를 받은 장신대 학생 두 명이 끝내 불합격 처리되며 교단의 안팎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올해 제104회 총회에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교단의 대전서·충북·함해·충청노회 등이 △동성애를 포함한 젠더주의 대책을 연구할 상설위원회를 설치해 달라고 현의했다. 경남·포항·충북·충청노회도 △동성애의 폐해를 교회학교 공과책에 수록해 줄 것을 현의했다. △교단 산하 신학교 시행세칙에 '동성에 지지자와 옹호자는 처벌한다'는 징계조항을 삽입해달라는 현의안도 올라왔다.
예장 합동 측은 관련 현의안도 눈에 띈다. 목포서노회는 △취어신학을 이단으로 결의해 줄 것과 △성소수자와 종교차별금지에 찬동하는 학생은 입학을 불허하며 퇴학조치

를 취한다'는 것을 교단 산하 신학교 입학조건으로 해 줄 것을 현의했다. 예장 통합 측은 오는 23~26일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예장 합동 측은 오는 23~27일까지 서울 충현교회에서 제104회 총회를 개최한다.
동성에 말고도 다양한 안건이 총대들의 결정을 기다린다. 합동 측은 총신대학교 운영위원회 폐지안을 비롯해 대내·대외 총무 이원화안, 목사 정년 연장안 등을 다룬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제69회 총회를 개최하는 예장 고신 측은 △생계를 위한 목회자 이종직 검토 △학생신양운동(SFC)의 과도한 간사수를 줄이고, 순수 학원복음화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역을 구조조정할 것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24~26일 덕산 스파라스 리솜에서 제104회 총회를 개최하는 예장 합신 측은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명칭 변경 △총회 임원 선거 전자투표 도입 △강도사 고시 시행 방식 변경 등을 다룬다.
한국기독교교장로회(기장)는 오는 23~26일,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제104회 총회를 개최한다. △최저임금 수준의 목회자 사례비 책정 △교회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의 안건이 눈에 띈다.
대신교회협동신문 우인식기자

Contents

2-5 교단소식 6 신학산책 7 신앙과 삶 8 전면광고

제50회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속회공고

존경하는 대신인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받은 상처가 많을지라도,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정식으로 열리는 대신 50회 총회에 참석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총회는 회복총회의 특성상 특별한 총대원을 지정하지 않고, 대신인이려면 누구든지 참여하여 우리가 추구했던 김치선을 살려내고, 대신을 다시 결집시켜 예수한국, 복음통일, 땅끝선교라는 역사적 사명을 우리 대신교단이 이뤄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10월17일(목)~18일(금) 오후2시

화성리버돌

등록접수 오후 2시부터

경기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 286 (031-352-7150)

2019년 9월 23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49회 총회장 전광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18장:18절)

대신(수호)총회 정기총회

| 지난 9일(월)-11일(수), 충남 대천 한화리조트 신임총회장 황형식 목사 선출



황형식 목사
대신(수호)총회장



대신(수호)총회는 지난 9일(월)-11일(수) 충남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 날 새로 선출된 총회 임원진들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황형식목사(장항성일교회) △부총회장: 이상재목사(함께하는교회), 임면재장로(정원교회) △서기: 강문중목사(인천주님의교회) △부서기: 홍상표목사(겨자씨교회) △회의록서기: 모연구목사(갈릴리교회) △부회의록서기: 송재권목사(동문교회) △회계: 용승복장로(팔복교회) △부회계: 김관선장로(한길교회) △총무: 조강신목사(성문교회)

백석대신총회 정기총회

| 지난 9월 19일(목) 오후 2시 경기 화성 라비돌리조트 신임총회장 유만석 목사 선출



유만석 목사
백석대신총회장



백석대신총회는 지난 9월 19일(목) 오후 2시 경기 화성 라비돌리조트에서 제42회 총회가 열렸다. 이 날 새로 선출된 총회 임원진들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유만석목사(수원명성교회) △부총회장: 양일호목사(대전영광교회), 정복섭장로(남서울교회) △서기: 류기성목사(머릿돌교회) △부서기: 문윤기목사 △회의록서기: 김희석목사 △부회의록서기: 강유식목사(글로벌교회) △회계: 정규성장로 △부회계: 이진섭장로 △비상근사무총장: 김자중목사
11월4일 속회하기로 하고 백석대신총회 비전선언문을 모두가 낭독하고 정회하였다.

협동서론



김호진
생명성교회 원로장로
중고등학교 교장

신념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 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는 마음 다짐이며 각오이다.

믿음은 확신하며 행함으로 이루어져 열매가 열리는 것이 산 믿음이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대로 행하여 열매가 있을 때 바로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로마서 1:16~17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부부간이라도 사소한 말싸움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배려해야 하고, 서로를 높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도리입니다. 남을 높여주는 것도 습관화 되어야 합니다.

“신념 (信念) 과 믿음”

언제든지 남을 깎아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버릇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겸손을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몸이 되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관대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순종하시거든 교만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마다 “당신이 뭘 알아요?” 라고 하며 시도 때도 없이 남편을 구박하는 부인이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그 부인에게 아주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 있으니깐 빨리 오라는 전화였어요! 부인은 전화를 받고서 정신이 아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를 잡아타고는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남편이 죽어서 하얀 천을 뒤집어쓰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멀쩡하던 남편이 하루 아침에송장이 되어서 누워있으니 말이 안나올 지경이지요! 허구 한 날 남편을 구박했던 부인이었지만 막상 죽은 남편을 보니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더라요!

그래서 부인은 죽은 남편을 부여잡고서 대성 통곡을 하면서 한없이 울었답니다. 부인이 한참동안을 그렇게 울고 있는데 남편이 슬그머니 하얀 천을 내리면서 숨을 훌쩍 거리면서 말을 하더라입니다.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러자 깜짝 놀란 부인이 울음을 뚝 그

치면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당신이 뭘 알아요!? 의사가 죽었다는데 !”

뭐든지 한번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언제나 그렇게 사람이 만만해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교양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는 진리의 기둥이 되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서 이 진리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그 첫머리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택정하셨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 즉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 가려고 무척 애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복음에 빛을 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을 로마에 가서 전 해야겠다’ 는 것이 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100년, 2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목숨을 내 놓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본 강점기에도 그랬고,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랑스럽지 못한 것처럼 여겨졌고, 숨어서 예수 믿어야 했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한

것처럼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을 알고 나면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신학은 ‘이신칭의’ (以信稱義)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겸손인줄 알지만 목마르다고 아무 물이나 마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십자가 걸친다고 다 같은 교회나 교인이 아니올시다.

우리는 주 예수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믿는 자들로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존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 타 종교를 따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다른 집종의 종교와 사이비 종파들과 화합할 나약한 종교인이 아닙니다.

일반 종교가 드라마라면 기독교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믿고 불교는 가상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이요 허구이며 거짓말이인 사단의 말입니다.

이 차이점을 알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힘을 내어 전도하고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행 4:12)

할렐루야!

김호진 장로

일열낭독



신동욱목사
동천교회 담임

할렐루야! 사랑하는 일열낭독운동회원 여러분!

지난 한 주간(週間) 동안에도 주님의 은총(恩寵) 가운데 평안(平安)하십니까? 신동욱 목사입니다.

오늘이 9월6일 금(金)요일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9월8일 (주일)이 백로(白露)입니다. 그리고 보름 후(後)인 23일이 추분(秋分)입니다.

대학병원(大學病院)에 가서 본 TV에서는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 문재인으로부터 법무부장관(法務部長官)후보(候補)로 지명(指名)된 사노맹(社勞盟-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출신(出身) 공산주의자 조국의 뽀빠스럼과 가증(可憎)스러운 위선(僞善)과 외식(外飾)이 야당(野黨)의원들로부터 질타(叱咤)당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제 13호 태풍(颱風) 링링(LING LING)이 내일 한반도(韓半島)를 강타(強打)한다고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阿修羅場)입니다.

이승만(李承晩) 건국(建國)대통령과 박정희(朴正熙) 산업화(産業化)대통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유(自由)도 많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뒤늦게 적(敵)그리스도 공산당들이 네 번째 정권(政權)을 잡고 나라를 생지옥(生地獄)으

사랑하는 일열낭독운동회원 여러분!

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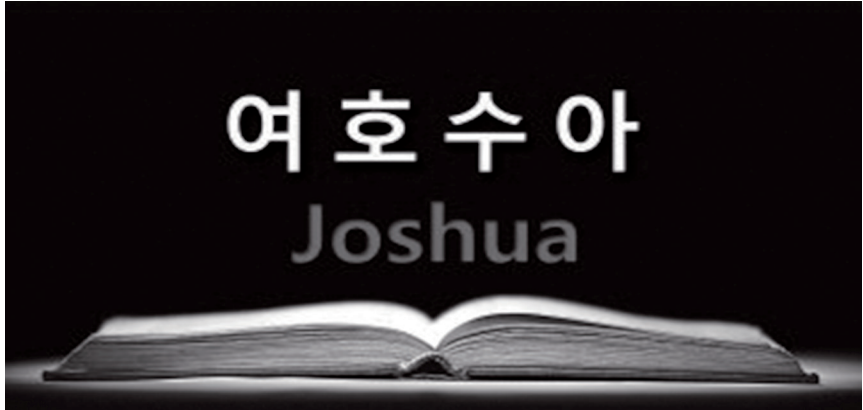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자연재해(自然災害)인 태풍까지 한반도를 강타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피해(被害)가 날지 내일이 되어봐야 알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는 명백(明白)한 하나님의 진노(震怒)요, 분노(忿怒)입니다.

節)은 바깥입니다.

사람의 일생(一生)도 연연(軟軟)한 연둣빛 소년(少年) · 소녀(少女)시절이 있다가 하면, 푸르싱싱한 청년(靑年)시절이 있고, 연부역강(年富力強)한 장년(壯年) 시절이 있으며, 인생의 중후(重厚)함과 성숙(成熟)함으로 가득 찬 중년(中年)이 있고, 이윽고 우아(優雅)하고 아름다운 노년(老年)이 있게 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재(災)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痛悔) 자복(自服)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무덤기는 합니담라는 아마 이번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날씨가 확실히(確實)하게 가을로 접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 당(唐)나라 시인(詩人) 「맹호연(孟浩然)」의 『초추(初秋-초가을)』라는 제목의 시(詩)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새 초가를 받은 점점 길어지고 술술 맑은 바람 쓸쓸함이 더해 가네 불별더위 물러가고 초가집에 고요함이 감도는데 섬돌 아래 잔디밭에 이슬이 맺히네』 이 섬돌아래 잔디밭에 맺힌 이슬이 바로 「백로(白露)」입니다.

드디어 가을이 와서 하얀 이슬이 풀잎에 맺히기 시작했다는 말이지요.

주제(主題)는, 기브야의 거민(居民)들이렇게 세월(歲月)은 흐르고 계절(季

이지요.

여기서 때마다의 수식어(修飾語)들은 건전(健全)하게, 순조(順調)롭게 잘 살았을 때의 경우(境遇)를 말합니다.

인생(人生)은 변수(變數)가 많은 법이지요.

그래서 인생은 고해(苦海)라고도 말 하는 법입니다.

잘 사는 비결(秘訣)은 한 가지 밖에는 없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기록하신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全知全能)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신앙(信仰)하고 진리(真理)의 말씀과 기도(祈禱)로 잘 연단(鍊丹)·단련(鍛鍊)하고 사는 것이지요. 그러나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오늘해석의 밑줄은 수9:1~27절까지입니다.

주제(主題)는, 기브야의 거민(居民)들이

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택(擇)한 백성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선지자님의 인도(引導)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시마하고 약속(約束)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러 여러고 성(城)과 아이성을 점령(占領)하였을 때에 가나안 6부족(部族)은 (헛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한데 모여서 일심(一心)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였으나, 그러나 그 중(中)에 기브온 거민들은 꾀를 내어 멀리서 온 거민으로 가장(假裝)을 하고 여호수아 선지자님과 이스라엘의 지도자(指導者)들을 속였습니다.

여호수아 선지자님과 이스라엘 회중(會衆)의 족장(族長)들은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和親)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言約)을 맺고 그들에게 맹세(盟誓) 하였습니다(수9:14~15).

삼 일이 지나서야 속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怨望)했습니다.

결국(結局), 여호수아 선지자님께서는 그들로 여호와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와의 단(壇)을 위하여 나무 패며 물 길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수9:27).

사랑하는 일열낭독운동회원 여러분!

여호수아 선지자님과 회중 족장들, 즉 지도자들의 실수(失手)는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묻

60년 만에 예장통합·예장합동 연합기도회로 뭉쳤다

교단 분열 60년 만에 처음으로 총회 차원의 연합 기도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이 1일 경기도 안양 평촌교회에서 교단 분열 6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교회 회복과 연합을 위한 장로교(합동·통합) 연합 기도회’를 열고 있다. [출처:국민일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과 합동이 교단 분열 60년 만에 처음으로 총회 차원의 연합 기도회를 열었다. 양 교단은 “남북문제와 한·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빠르게 세속화되고 교회의 사회적 신뢰 회복은 더욱 절실해졌다”며 “지난날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앞날의 대치를 함께 모색해야 할 때”라고 기도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한국교회 회복과 연합을 위한 장로교(합동·통합) 연합 기도회’로 명명된 예배는 1일 경기도 안양 평촌교회(림형석 목사)에서 드려졌다. 예배는 태극기를 앞세우고 예장통합과 예장합동 깃발 뒤로 양 교단 임원들이 입장하며 시작됐다. 성시 교독은 시편 133편이었다. 2000여 성도들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를 낭독했다.

예장통합 총회장인 림형석 목사는 “오늘은 1912년 9월 1일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창립된 지 107년을 맞는 날인 동시에 양 교단이 나뉜 지 60년을 맞은 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께서 한국에 장로교회를 독립된 교회로 세워주신 날을 맞아 교단 분열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며 모였다”고 인사말을 했다. 평촌교회 새에덴교회 익투스 찬양대의 합창이 협차게 울려 퍼졌다.

예장합동 총회장인 이승희 목사는 ‘우리’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총회장은 “1912년 양 교단의 모체인 조선예수교장로회가 평양에서 제1회 창립총회

개회예배를 드릴 당시 총 교인 13만명에 기도처를 포함한 교회 수가 2504개였다”고 회고했다. 이 총회장은 “1959년 교단이 분열될 무렵 제가 태어났다”면서 “얼마나 슬펐던지 울면서 태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과 합동, 두 이름을 거꾸로 읽으면 발음도 비슷하다”면서 “60년이 지나 서로 협력하며 연합하는 노력을 할 것이 예고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나님 앞에선 너와 내가 없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기도 순서가 이어졌다. 예장합동 서기 김종현 목사는 ‘한국교회의 회복과 연합을 위하여’란 제목으로 기도하며 “갈등 속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예장통합 서기인 김의식 목사는 “군대에서도 학원에서도 산업 현장에서도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저희를 써 주소서”라며 “한국교회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힘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했다. 예장합동 회록서기 진용훈 목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예장통합 회록서기 윤태대 목사는 한·일 관계 회복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예장통합과 예장합동 교단은 1959년 세계교회협의회(WCC)와 협력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리며 분열돼 오늘에 이른다. 예장통합 부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기도회 참가자를 대표해 메시지를 내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한 마음으로 연합해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권위(權威)로 행동(行動)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들이 이와 같이, 비(非) 신앙적(信仰的), 무신론적(無神論的) 태도(態度)로 행동(行動)하게 될 때에 백성들은 지도자들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든, 백성들이든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행동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적 태도요, 성경적(聖經的) 태도요, 영적(靈的) 태도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신앙적 사고(思考), 영적 사고, 성경적인 사고를 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주후 2019년 9월

신동욱목사 동천교회 담임



대신교회협동신문

대표 최종한

발행인/편집인 강영철 인쇄인 이병동 청소년보호책임자 강영철

등록번호 경기, 다 50524 등록일 2016년 4월 19일

주소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 149

전화 032-664-0153~4

후원 농협 355-0064-8056-93 대신교회협동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신학산책

서사라 목사의 천년왕국설에 대한 비판적 평가

‘이 글은 지난 8월 27-29일에 있었던 평서노회 연합집회에서 주강사였던 서사라 목사의 천년왕국 이해에 대한 비판적 평가라는 필자의 논문(A4 43쪽 분량)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 편집자 주



서사라 목사
주님의 사랑 세계선교센터 원장

필자는 서목사의 저서를 읽으면서 ‘서목사와 같은 경험을 한 내용에 신학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하는 질문을 던졌다. 아마 이런 체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신학자들도 있을 것이다. 신학 작업은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영적인 체험은 학문적인 연구의 대상으로는 기피할 것이다. 반면에 수용하는 입장에 있는 신학자들은 이런 체험이 성경의 가르침과 어떤 조화를 이루는가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기독교 신학이란 사실상 성도들에게 최종적인 구원의 목표지점으로 가는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을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신학의 역사는 사실상 바른 로드맵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서로 간에 비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서사라 목사의 증언에 대한 학문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은 이런 로드맵을 만든 일과 관계한다. 이제 서목사의 주장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1. 서목사는 특별한 경험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녀는 의사로서 탁월한 과학자로서 과학계에 큰 업적으로 남긴 유명인사인데, 예수를 믿고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했으며 지금은 복음을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활발히 사역하고 있다.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서 쓴 박사학위 논문은 유명한 잡지에 실렸고 UCLA에서 쓴 박사후 과정에서 쓴 논문은 30년 내려오던 이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론을 주창했다. 이런 점에서 뉴턴 시대의 뉴턴에 방불한 과학자로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와 “천국과 지옥”이라는 저서를 남긴 이마누엘 스웨덴보리나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뇌사상태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체험기(나는 천국을 보았다)를 쓴 이른 알렉산더 교수를 생각나게 한다. 서목사는 성경을 매우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가 의사와 과학자의 자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2. 서목사는 천국과 지옥을 오가며 거기서 스스로 본 내용을 그림 그리듯이 묘사하고 또 거기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주님과 믿음의 선진들과 나눈 대화를 크게 참조함을 보여준다. 일곱 권에 이르는 서목사의 저서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다른 모든 사람들과는 달리 그녀는 많은 질문을 던짐을 쉽게 볼 수 있다. 다른 대부분의 경험자들은 자기들이 천국과 지옥에서 본 것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으로 그친다.

3. 서사라 목사는 ‘현재 하늘 낙원’의 구조와 ‘천년왕국’의 구조 그리



권오덕 교수
콜부루게학과 연구소 소장

고 ‘영원천국’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동일하다고 증거한다. 1) 성(城)안, 2) 성(城)밖, 3) 지옥. 즉 천국은 영광스러운 곳인 성(城)안과 어둡고 고통의 장소인 성(城)밖 이 둘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그 동안 그 누구도 지적하지 못한 부분이다. 서목사는 특별한 체험으로 천국과 지옥을 둘러보고 증거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말하며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적 근거를 여러서는 다섯 처녀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것 같은 구절에서 암시되고 있다고 보고 천국의 성 밖 정보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말한다.

4. 서사라 목사는 천국을 두 단계 곧 성(城)안과 성(城)밖으로 나누기 때문에 기존 세대주의자들이 성 안에 영원하로 몸을 가진 자들과 죽을 수 있는 몸을 지닌 자들이 함께 거한다는 모순을 극복하게 한다. 즉 서목사는 천년왕국 성(城)바깥에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살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고 천년왕국 바깥에서도 천년동안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난다고 한다. 나아가 서목사는 천년왕국 바깥에서 아이를 낳고 죽고 하면서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에 일부는 낙원으로, 다른 부분은 음부로 들어간다고 말한다. 이 부분 역시 기존 신학에서는 매우 낯설어 하기 때문에 정밀한 성경해석적인 논의가 요구될 것이다.

5. 서목사에 의하면, 아마겟돈 전쟁 때 예루살렘을 치러온 자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인데 천년왕국 성(城)밖에서 100년 정도 살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하면서 살아 있으면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자들이 있다(계 20:7-10). 이들이 나중에 성도들의 진(陳)을 형성하는데, 곡과 마곡은 이 진(陳)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城)인 예루살렘을 둘러싼다고 한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성밖에 살면서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다는 이 내용도 세대주의자들이 묘사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주장들에게 매우 낯설어서 면밀한 성경해석적 논의가 요구 될 것이다.

6. 서목사에 의하면, 하늘이 불에 타고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체질이 불에 녹고 현재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이때 짐승, 거짓 선지자, 마귀와 함께 유향불에 던져져 영원토록 괴로움 당하고 있고(계 20:7-12), 천년왕국에 들어갔던 의인들은 하늘 낙원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진다고 한다. 사실 이 점은 서목사의 독특한 주장으로 다른 모든 천년기설자들이 답을 주지 못한 내용이다. 이 문제를 두고 신학적이고 성경해석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무천년기설도 주께서 재림하실 때, 지각(地殼)에 대 변동이 있음을 말한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기간에 성도들은 어디에 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필자는 무천년기설자

7. 서목사는 네 가지 휴거를 말한다. 첫째는 대환난기 전에 온전한 성도들이 휴거 한다는 것, 둘째는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일하고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휴거한다는 것, 셋째는 예수를 믿는 144,000 유대인들이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다가 대환난기 이후 알곡으로 추수되는 휴거사건(계 14:14-16)이 그것이다. 대환난기를 초림과 재림 사이로 보는 무천년기설이나 역사적 전천년기설은 강력한 반격을 가할 것이다. 문제는 어느 쪽이 성경을 자연스럽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다.

8.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은 서목사가 집회하는 동안 천사들이 나타나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을 보는 것이다. 필자는 이 집회에 참석한 한 지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 필자는 10여 년 전에 고 최의원 박사를 통해 성도들의 이마에 십자가가 그려진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집회의 경험이 어떠한 것일까 하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지인에 의하면 서목사가 영안(靈眼)으로 집회 가운데 나타난 천사(?)들이 진심으로 회개한 성도들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에스겔서 9:4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것이다. “겔 9:3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러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 옷을 입고 서기관과 떡 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4.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을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 집회에서 서목사가 본 인(印)을 치는 사람들의 의복착용이 이 구절과 너무나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마에 무슨 표를 그렸는지 몰으니 십자가라고 한다. 그것이 십자가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 말 번역에는 그냥 ‘표’를 그리라’고 한다. 히브리 원문은 ‘타우를 그리라’고 한다. 그러면 이 타우는 무엇인가? 에스겔 시대의 히브리 문자에서는 타우가 X로 표기되었다. X는 십자가를 의미한다. 구약소속였던 고 최의원 박사는 그의 ‘새즈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순 우리말 구약성경에 곱셈표라고 번역했다. 최박사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었다고 한다. 우리는 서목사의 이런 사역에서 그녀가 영안으로 본 내용이 성경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어떤 신학이 자기 패러다임에 갇혀서 계속 그 틀로만 해석하려고 할 때는 성경에서 새로운 진리를 발굴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도 일종의 이념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4가지 전천년기설 중에 어느 하나도 절대적인 것으로 말할 수 없다. 모두 다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이론들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치 16세기 개혁자들의 이론들이 21세기에 와서는 더러 무리한 것으로 판명되는 것처럼 말이다.

기존 개신교 신학은 성경이라는 문헌과 교회가 생산한 것을 그 주된 자료로 취급한다. 개혁신학의 경우 서목사가 겪은 어떤 영적인 체험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허용될 수 있을까? 아마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개혁신학은 우선 성경을 문법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일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체험이 성경을 깊이 해석하는 문제와 맞물려 있고 충격을 준다면, 이런 체험은 교회와 신학 발전에 큰 자극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즉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성경진리를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면 신학 논의의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필자가 역점을 두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어떤 신학을 비판하고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전체가 요구하는 내용을 추구하는가 하는 것이다. 성경은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오신 것이라고 가르친다. 서목사의 모든 사역이 죄인들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데 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서목사가 천국과 지옥에 가서 놀라운 것을 보고 듣고 와서 전하는 내용 그 자체를 전하는 목적이 불신자들을 회개하게 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본다. 즉 서목사의 관심은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있다. 이런 점에서 그녀의 특별한 발언은 신중하게 평가해야 되고, 평가할 경우에는 기존 성경해석에 대한 성찰 있는 반추(反芻)가 있어야 될 줄로 여겨진다. 사실 하나의 신학이란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반성이 요구되고 나아가 수정이 가해지는 것이다. 개혁신학의 생리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종교개혁신학은 성도들을 위한 로드맵을 제공하는 일을 위해 자기 신학을 무섭도록 반성하고 대안을 생산해 놓아야 한다. 이로 보건대 서목사의 증언과 발언에 대해 진지하고 건설적인 평가를 위한 학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신학적인 반성 없이 자기 이념에 갇혀 공정한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것은 개혁신학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뉴스앤조이는 반기독교적” ... 조사 및 후원 중단 결의 |고신총회 직전 임원회 “교회 공격하고 동성에 적극 옹호”



제69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된 신수인 목사가 지난 17일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출처] - 국민일보

예장 고신(총회장 신수인 목사)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 진창설 목사, 이하 이대위)가 뉴스앤조이(이하 뉴조)를 조사한다. 이 기간 교단 소속 교회는 뉴조에 대한 후원을 중단해야 한다.

고신 측은 제69회 정기총회 셋째 날인 19일, 뉴조와 관련한 청원에 대해 “이대위에 조사를 맡기되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교회의 후원은 중단하는 것이 가한 줄 안다”는 신학교육부(부장 김세중 목사) 보고를 허락했다.

해당 청원은 경기북부노회와 직전 회기 총회임원회가 했다. 먼저 경기북부노회는 “일부 기독교 언론으로 빗자런 언론에 의해 바른 교회운동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건전한 기독교 언론이 있는가 하면 이단을 옹호하고 공격신뢰를 저버린 언론이 독버섯같이 자라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인터넷 언론인 뉴조가 한국교회를 섬기기보다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히 동성애를 강력히 옹호하는 글을 수없이 싣고 있다. 이런 언론을 많은 교회가 후원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총회가 명확히 분별해 주시고 총회에 속한 교회와 성도

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사를 통한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뉴조 조사'를 청원했다.

직전 회기 총회임원회는 “인터넷 신문 뉴조가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며 성경에 절대적으로 반하는 동성애를 적극 옹호하고 있다”며 “뉴조가 반성경적, 반기독교적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뉴조를 후원하고 있다. 이에 뉴조가 건전한 기독교 언론인지 연구 조사를 주기를 청원한다”고 했다.

한편 신수인 신임 총회장은 취임사에서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교회다움이란 복음 중심적 교회,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칭송받는 교회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른 신학을 확립하고 순수한 복음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022년 총회 설립 70주년이 뜻깊은 한 해가 되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순장 총회와의 교류추진위원회를 통합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아름다운 결실이 맺히도록 노력하겠다. 또 북한선교 정책 수립, 목회자 최소생활대책 마련, 동성에 합법화 저지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신 총회장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고려 총회와 통합한 이후 상당히 좋은 평을 들으며 우리 교단의 위상이 올라갔다. 순장 측과도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번 회기 안에 잘 하면 통합도 이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순장 측은 과거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등 고신 측과 여러 면에서 통하는 교단이다.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총회 시즌 통합, 합동 각각 23일부터 일제히 개최

| 통합 신임총회장 김태영 목사, 합동 신임총회장 김종준 목사 선출



▲ 23일 서울 강남구 충현교회(한구삼 목사)에서 제104회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장 림형식 목사)은 신임 총회장에 김태영 목사가 만장일치로 자동 승계됐으며, 부총회장 후보는 모두 단독 출마했으나, “법이요”를 외친 몇몇 총대들로 인해 정회시각을 40여분 넘겨가며 전자투표를 거쳤다.

투표 결과 1,434표 중 신정호 목사는 1,381표, 김순미 장로는 1,121표를 얻어 당선됐다. 김 신임총회장은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 연합동 총회, 다음세대, 총신대, 목회자의 영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목사부총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소강석(새에덴교회) 목사도 당선을 확정지었다. 목사부총회장 선거에서 경선을 치르지 않은 것은 제93회 총회에서고 서정배(울산 대광교회 원로) 목사가 단독 입후보한 후 11년만이다. 서기와 회계도 이전 회기 부임원을 지낸 정창수 산돌교회 목사와 이영구 서현교회 장로가 투표 없이 정임원으로 추대됐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이

승희 목사)이 23일 서울 강남구 충현교회(한구삼 목사)에서 제104회 총회를 개최하고 김종준(꽃동산교회) 목사를 신임총회장으로 추대했다. 이날 개회예배 직후 진행된 임원선거에서 총대들은 103회기 부총회장을 지낸 김 목사를 기립박수로 추대했다. 김 신임총회장은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 연합동 총회, 다음세대, 총신대, 목회자의 영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목사부총회장에 단독 입후보한 소강석(새에덴교회) 목사도 당선을 확정지었다. 목사부총회장 선거에서 경선을 치르지 않은 것은 제93회 총회에서고 서정배(울산 대광교회 원로) 목사가 단독 입후보한 후 11년만이다. 서기와 회계도 이전 회기 부임원을 지낸 정창수 산돌교회 목사와 이영구 서현교회 장로가 투표 없이 정임원으로 추대됐다.

대신교회협동신문 김영덕기자

칼럼



〈김영구 목사〉
개혁주의성경연구소 소장
뉴욕과학아카데미(NYAS)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다는 것은 기적과 같다”

사람은 그 자체로 그리고 자체로부터 남에게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남에게 줄 수 있다. 오히려 다른 생명체들처럼 사람도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으로만 존재하는 자일 수 밖에 없다.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받는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체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라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을 그릇으로서 그런 비약적 형식은 우주 안에서 존재하는 방식 중에서 특별한 크기의 세계 안에서만 주어진 특별한 형식들 중 하나이다. 즉 그런 생명

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자로 계산하면 타자인 받은 자로서 그런 형식을 가진 셈이다.

그렇다면 그런 생명체들 중에서 누가 우주의 모든 것들을 그의 진정한 선물들로서 받을 타자로 있고 그런 타자가 받을 선물들 중에서 그 궁극적 내용들은 무엇인지는 우주의 가장 신비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인간의 상상과 달리 화성에는 물의 흔적이 남아 있더라도 그 물을 받을 타자가 없다는 점에 놀라고 있다. 우주의 모든 신비가 모여져 있는 지구,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값진 것들이다. 아무리 남을 미워하고 다른 생명들을 앗아가는 일을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자체와 그 자유의지라는 형식들을 통하여 취하는 모든 것들이 그의 주변에 존재하지 않는가? 너무 큰 은혜를 받는 자로서 거기 있는 것이다.

어떤 생명체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을 대상으로 존재하는 이상, 그 자체로 존엄할 것이다. 성경에는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창조된 형식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그 자체로 그 존엄이 선포되고 있다(창 9: 4-6).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그리스도

의 산상보훈에는 놀람게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다. 아마 그런 자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라고 선포되고 있는 셈이다.

그 마지막에 그런 복들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대로 행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며 거스려 거짓으로 그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도 그도 이미 복을 받는 자로 선포되어 있다.

땅에서나 하늘에서 그들에게 그에 대한 보상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자들이라고 선포되어 있기보다는 그런 자로서 있다는 것으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라고 선포되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죄란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죄를 짓는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복은 이미 받은 복에 그 보상으로서 덤으로 받는 복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미 가장 큰 상급을 받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들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제들이 되어 가는 구원의 서정을 자체가 이미 복을 받

은 땅에서의 유일한 증거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들 외에 나머지 복들은 모두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로 인간은 창조되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조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미 그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닮아갈 수 있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졌다는지, 마음에 거짓이 없다든지, 뇌 세포들이 갖는 모든 유연성들이 최대로 발휘되어 눈이나 얼굴 그리고 자세에서부터 온유함이 나타나 있다면 그는 이미 그런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있어서 그런 복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 우주의 신비이다. 더구나 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한 복을 받는 일은 우주의 가장 큰 기적일 것이다.

따라서 그런 기적들 중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났던 자들보다 전 성경을 통해

서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값진 것들을 모아 그런 복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만을 자신들의 신앙으로 고백하였던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성직자들이 모든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자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 후 인류 안에 더 이상 그런 복을 받지 못한 역사 가운데 1728년 미국의 존 톰슨(John Thompson) 목사와 대회 안에서 그의 발의에 동의한 자들에게 그런 복이 임하였다고 본다. 당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들, 그리고 예배모범과 교회 정치가 장로교회 성직자들과 회중들의 고백과 역시 그들의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들, 예배모범 및 교회 정치가 그들의 고백서로서 공적으로 채택이 되고 서명되거나 교회의 권위 앞에 엄밀한 선서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고백으로 검증되고 인정된 일이 없었다.

이런 이유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들, 예배모범 및 교회 정치

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에 가장 일치하는 그들의 고백서들로 채택할 것을 발의하는 발의서를 대회에 제출하였던 톰슨 목사의 마음과 그 행동들이 미국 역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은 내용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미국의 모든 복들은 거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확신하고 있다. 한국의 교회는 그 동안 실제적으로 그런 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런 기적과 같은 복을 받은 미국의 경우에도 그 후 교회 역사가 증거하고 있듯이 그런 복을 지탱할 수 없었다.

기적처럼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

참으로 거룩한 교회에게도 그런 복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같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로 교회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점점 더 강하게 느껴지고 있다.

어름특강

개혁주의 교회는 ‘팀 켈러’로부터 무엇을 배울까? _고상섭 목사

* 최근에 주목받는 리디머(Redeemer)교회 팀 켈러(Timothy J. Keller) 목사의 목회 철학을 들여다보고 개혁교회가 받을만한 교훈과 적용점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고상섭목사
제자훈련연구소, CTC korea 강사

개혁주의는 그 신학의 기초부터 따뜻함을 포함하고 있다
신학의 기초가 은혜 위에 있는 것이
겸손한 개혁주의다
은혜의 복음이 겸손을,
그 겸손이 결국 연합을 낳는다

3.따뜻한 개혁주의

개혁주의를 공부하는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나는 개혁주의를 사랑하지만, 자칭 자신을 개혁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과는 좀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었다. 개혁주의자라고 자처하는 분들 중에는 전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개혁주의 신학의 타월함과 통일성에 매료되어, 다른 신학과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비판적일 때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개혁주의 안에서조차 자신의 소리가 있을 때마다 자주 듣는 말이 바로 ‘따뜻한 개혁주의자가 되라’는 말이다.

왜 개혁주의자들은 따뜻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보이는 것일까? 팀 켈러 목사는 그런 현상이 신학은 바르게 성품의 문제라고 진단하지 않는다. 개혁주의자가 따뜻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그

의 신학의 기초부터 잘못된 것이라 말한다. 개혁주의는 그 자체로 따뜻함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8년 팀 켈러 목사가 한국에서 목회자 컨퍼런스를 가졌다. 그곳에 참석했을 때 가장 크게 놀란 것은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의 다양한 신학적 배경이었다. 많은 세미나를 참석하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다양한 신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었다. 대부분 세미나는 개최하는 교단과 목회자의 성향과 비슷한 사람들이 오는 편이지, 전혀 다른 신학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목회자의 세미나에 다른 신학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일까?

나는 그 이유를 팀 켈러의 전달방식 때문이라 생각한다. 팀 켈러는 확실한 개혁주의자이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매우 겸손하다. 아마도 뉴욕에 있는 회의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더욱 훈련된 것 같다.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복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전달방식도 중요하다. 권위를 탈피하는 시대에 권위적으로 전달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

컨퍼런스 강사로 온 분들 중에 팀 켈러에게 학생 때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목회자가 있었다. 그에게 팀 켈러 목사의 특징을 물었더니 1초도 지체하지 않고 “겸손합니다.”라고 대답했다. 30년 가까이 함께 있었던 사람의 증언이라 더 충격적이었다. 다른 많은 특징이 있을 텐데 ‘겸손’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의 삶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기 때문일 것이다. 겸손은 단순히 훈련을 통해 도달하는 영역이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성격이 아니다. 그것

은 복음을 통해 열매 맺는 것이다.

복음은 겸손을 낳는다

팀 켈러는 복음을 말할 때, 인간이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행하신 무엇이라 정의한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드린 그 은혜의 구원을 복음이라 말한다. 만약 인간이 행위로 구원을 얻었다면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고, 자신의 잘못을 자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인한 구원이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보다 더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은혜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죄인 됨에 대한 깊은 인식을 통해서 결국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 결국 내가 사람을 대하는 대인관계는 죄인 됨에 대한 인식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철저히 죄인 됨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공격할 수 있겠는가?

개혁주의 신학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전적 타락을 기초로 하는 신학이다. 그렇다면 철저한 개혁주의자들이야말로 죄인 됨을 고백하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의 사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잘못 인식되면 율법주의자로 변질된다. 그러면 도덕적 타월함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된다.

은혜의 감격과 죄인 됨에 대한 철저한 자각을 상실한 개혁주의는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을 닮아가게 된다.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The prodigal God)은 잘못된 복음의 예를 잘 설명해 준다. 이 책은 누가복음 15장을 기초로 한 설교이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탕자로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은 그를 받아준 아버지에게 불만을 느끼며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눅 15:29)이라고 말한다. 자신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았던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가 열심히 한 만큼 어떤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러나 개혁주의 선행이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그 반응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자신의 행위를 보상이나 우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첫째 아들을 또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눅 15:30).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자신의 동생을 무시하는 표현처럼 들린다. 왜냐하면 자신은 더 의로운 존재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제를 통해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자신을 높인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총동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우월하다고 느끼며 자신들의 문화를 최고의 것으로 우상시 한다 … 그러나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지 않다. 왜냐하면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은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된다.”

팀 켈러는 상대방을 정죄하고, 무시하는 개혁주의자들이, 신학은 바르게 성품에서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성품을 조금 고치면 균형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학의 기초가 은혜 위에 있지 않음을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내 주는 것이라 말한다.

겸손은 연합을 낳는다

이것은 구약의 유대인이 가졌던 오류와 동일하다.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지만, 그 구원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했다.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라는 교만한 인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팀 켈러는 리디머 교회의 초창기에 이런 실수를 했다고 고백했다.

“초창기 리디머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뉴욕이라는 도시를 불쌍하게 내려다보는 잘못된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처럼 우리가 도시의 구원자인양 여기는 것은 해로운 생각이다. 우리는 겸손히 도시와 사람들을 존경하며 배워야 한다 … 우리는 얼마나 쉽게 복음을 망각하는가! 결국 복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가운데 사셨고,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셨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에 대해 배우게 된다 … 복음만이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고 (우리는 뉴욕이라는 도시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 자신감을 주고 (나는 도시에 줄 수 있는 것이 많다) 용기를 준다 (나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타인을 축복하는 효과적인 사역이 가능해진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이 말이 우리가 세상보다 더 뛰어난 존재라는 말은 아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다른 어떤 신학보다 통일성과 균형이 있는 신학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신학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복음과 은혜의 방식과는 거리가 먼 생각일 것이다.

팀 켈러는 복음은 우리를 반드시 겸손하게 하고, 그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으로 드러나며,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합’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개혁주의 신학은 타월한 신학이지만 크신 하나님의 전부를 다 이해하는 신학이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개혁주의가 아닌 신학들이 개혁주의보다 부족한 부분들이 많을지라도, 그들과 연합하고 대화하며 배울 때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르다고 협력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가 연합하는 법 교회성을 부인하는 우월주의는 문화적 유연성과 겸손한 복음의 부재를 반영한다. 또 팀 켈러는 한 교회가 지역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 교단이 다르지만 그 지역을 섬기기 위해 연합할 것을 강조한다. 은혜의 복음이 겸손을, 그 겸손이 결국 연합을 낳는 것이다.

이제 ‘따뜻한 개혁주의자가 되자’라는 말보다 ‘그냥 개혁주의가 되자’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따뜻한 개혁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자라면 반드시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변화는 복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신은 (따뜻한) 개혁주의자인가?”
〈글〉

* 고상섭 목사 _ 합심 졸업. 제자훈련연구소, CTC korea 강사.

김치선 특집

대신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스승 고봉 김치선 박사



고봉 김치선목사
대신교단 설립자

1.1. 구령운동

그 당시 남대문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전도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는 수요일 기도 후에는 교회의 청년들을 위하여 신앙강좌를 개설하고 청년신앙운동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매우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청년들에게 신학교육을 시켜서 전도대를 조직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김치선 목사로 하여금 하게 만든다. 김치선은 기도를 하면서 남한을 진정한 민족국가로 만들려면 이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먼저 이 민족의 심분의 일이 하나님을 믿어야만 된다고 결심하여 마침내는 ‘삼백만부흥전대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이 운동의 실천으로서 한 달에 한 번씩 초청강사의 부흥회를 가졌는데, 박재봉, 손양원, 배은희, 김인서, 이성봉 등을 강사로 하여 금식과 철야 운동도 벌였다고 한다.

김치선은 진정한 구령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주된 목표였는데, 그것은 성경에 입각한 철저한 신학사상의 전수를 통해서 이루어 질수 있다고 하였다. 당시의 자유주의 신학사조에 대

항해 김치선은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들을 지키려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래서 김치선은 단지 복음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에 휩싸인 백성들을 향해서도 성경에 입각한 바른 신앙을 제시하기 위해 열심히 헌신하였다. 이러한 김치선의 정신은 결국 신학교를 통해 바른 목회자를 배출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사명을 갖게 하였고, 그 결과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어서 정통신학의 공간을 유지케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김치선의 영향은 그의 사위인 최순직으로 고스란히 물려졌고 대신교단이 개혁파 신학의 보루임을 천명케 만든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2.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김치선 박사의 신학과 사상 그리고 주요 사역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그는 위대한 신학자라기보다 민족을 사랑한 목회자였고 민족을 어둠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애쓴 영적인 독립운동가였다. 그의 사역은 사변적이기보다 실천적이었고 그 방법은 기도, 회개, 그리고 구령운동(복음전도)의 모습을 취했다. 이러한 김치선의 사역의 특징은 든든한 조직신학적 배경이나 신학적 확실성 보다는 오히려 복음이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확신에서 나온 구령에 대한 열정과 무릎으로 엎드리고 야전성에 있었다. 이러한 귀결을 가지고 아픔과 고통을 딛고 다시 시작하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스승이시며 교단 설립자이신 김치선 박사가 세운 대신 교단 미래청사진과 방향성 그리고 김치선 박사가 외치고 역점을 두었던 사역에 가치를 함께 실천하자고 부탁하고 싶다.

첫째, 기도와 구령 운동 회복으로 예수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
김치선의 신학과 사역은 철저한 자생적

으로 살아남는 야전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철저하게 옹도려 기도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시대를 향해 행동한 행동가이다. 그는 2만 8천동네에 우물을 파라고 외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 신학교를 세웠고 3백만구령운동을 이끌었다. 이러한 일들은 안주하는 마음에서 나올 수 없다. 기도와 회개 그

목 차
1. 서론
2. 고봉 김치선 박사의 생애
가. 출생과 성장
나. 신학교시절
3. 김치선의 신학과 사상
가. 개혁파신학
나. 민족구령의 열정
4. 김치선목사의 사역
가. 기도운동
나. 회개운동
다. 구령운동
5. 결론
첫째, 기도와 구령 운동 회복으로 예수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유기체적 신학교육을 통한 복음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셋째, 현실에 맞는 사역 기능(훈련)과 지원을 통한 땅끝 선교 사명실현이다.

리고 구령운동의 야전성을 가지고 철저히 달려들어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교회 모든 교단들의 공통점은 교회개혁 운동이 사라지다시피 했다. 이러한 현상은 기도운동, 성령 운동, 전도 운동과 무관하지 않다. 세 가지 기도, 성령, 전도 운동이 시들해지니 자생력이 사라지고, 야전성이 사라지고 연합운동이 사들해지고 개교회주의와 탈 교회주의가 그 사이를 파고 드는 악순환의 고리에 걸려서 이제는 지금까지 쌓아 놓았던 것들을 꺾 감 빼먹듯이 교회들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과 시대에 접어든 우리 대신 교단은 교단 설립자이신 김치선 박사의 뜨거운 기도, 성령, 전도 운동을 다시 회복하여 김치선 박사 시절 읊던 동 숫자였던 2만8천 동네로 가서 개혁

하라는 명령을 다시 되새기면서 자생력과 야전성을 회복하여 예수 한국을 꿈꾸시던 그 꿈을 우리가 새롭게 꿈꾸고 만들어 가자.

물론 교단과 힘 있는 교회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개혁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뒷받침 하고 시대에 맞는 교회세우기를 위한 교육과 생존을 넘어 자립과 선교로까지이어지게 하는 교회지원정

보센터가 준비되어 있으니 교단 설립자 김치선박사의 정신으로 대신교단의 기초를 다시 수축하고 미래 교회와 교단들의 선두주자가 되자.

둘째로, 유기체적 신학교육을 통한 복음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김치선 박사의 신학교육은 이론보다는 실천과 사역중심의 신학을 강조하였다. 그는 대단한 설교가였다. 그의 설교는 사람들을 깨웠고 젊은 청년들을 세웠다. 현재 목회의 현장은 매우 실천적인 감수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사회의 중심을 관통하고 이미 모든 사람이 포스트모더니즘을 마시고 그것으로 숨 쉬고 있다. 지금까지 교단의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해 오면서 자연스럽게 조직신학에 치중되

현상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로 인해 신학교육의 현장 또한 조직신학이 중심에 있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신학생들은 조직신학적 사고를 가지고 목회의 현장에 투입된다. 그러나 조직신학적 사고를 가지고 공식에 대입하듯 목회 현장에 선다면 목회현장은 성도들의 삶과 이완되고 또 다른 사망자를 재생산해 내는 구조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성서, 역사, 조직, 실천신학의 고른 비중과 상호 유기체적 교육구조를 가져야 한다. 특별히 실천신학 분야의 비중이 아쉽다. 목회 현장에서는 가장 비중 있고 중요한 분야 이지만 교육의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구체적이지 않고 말 그대로 실천하면서 배우는 분야로 취급되어 온 부분이 많다. 실천신학은 학문구조상 접근의 방법이 현장 중심적이다. 포스트모던 사회의 본질을 기초로 두고 연구하고 적용해가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면서 현장 중심적이고 유연성을 가진 목회자들을 배출해 내는 구조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중심의 이동이 아니라 유기체적 교육구조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 대신교단은 교단의 설립자 김치선 박사의 주장처럼 신학 즉 학문에 멈춘 신학과 이론이 아닌 실천과 적용 가능한 사역 중심의 신학과 실천신학과 검증되고 인정받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 멀티플레이어와 같은 대신목회자를 만들고 세워서 이들이 남과 북이 갈라진 74년 분단의 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는 복음으로 통일을 만드는 주역이 되는 훈련과 준비를 하자.

셋째로, 현실에 맞는 사역 기능(훈련)과 지원을 통한 땅끝 선교 사명실현이다. 김치선 박사는 3백만 구령운동을 펼치면서 당시 삼각산 기도원 중심의 기도원 구조가 부족함을 느끼고 관악산에 뱀엘

기도원을 설립하고 부흥운동의 불씨를 지펴갔다. 당시 필요와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편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들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갈던 것이다. 예를 들어 교단신학교가 야전성을 강조하고 개혁의 가치를 들고 한다면 개혁을 위한 지속적 지원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구조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대는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세상의 제도들과 현장 사역에 미숙한 젊은 목회자들이 각자의 현장을 파악하고 현장중심의 사역구조를 계획하고 사역을 지속하고 성공적으로 이끌기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대신교단은 이러한 문제와 환경 그리고 적응에서 실패와 오류를 줄여주고 더 큰 미래를 열어주고자 준비한 것이 교회정보지원센터를 총회 사무실에 설치하여 전문가가 상담과 함께 기도와 지도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역은 대신교단을 넘어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섬김과 매칭, 정보교환과 연결, 훈련과 적용 등 미래와 현실을 대비한 교단설립자 김치선 박사의 행적에서 찾아 적용하는 매우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결국 땅끝 선교라는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위임해 주신 선교위임사역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다짐 이기도 하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땅끝 선교가 고봉 김치선 박사가 주장하던 신학과 실천임을 알고 제자이며 후배들이 우리 대신 이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 배우고 나누고 함께하는 거룩한 네크워킹을 하여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원하시는 교단을 세워 감시다.

다음호는 김향주교수가 신학이 연재됩니다.

구역예배

구역공과

- ▲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 ▲ 찬송: 438장
- ▲ 핵심단어: 결과, 받아들임, 하나님의 개입,
- ▲ 토의 1. 인간이 주인이 될 수 있는가 인간이 노력하면 가능한가
- 2. 욕심, 상황을 자기의 방식으로 끌어들이는 말에 대해 생각해 보라
- 3.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다림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
- ▲ 정리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결과를 만드신다

- ▲ 성경: 에베소서 2장 1-5절 찬송: 435장
- ▲ 핵심단어: 실존 비참 은혜
- ▲ 토의 1. 신앙은 지식인가 경험인가
- 2. 인생이 답을 가질 수 없을 때 어떤 모습이 되는가
- 3. 죄와 비참, 구원, 감사의 틀에서 구원을 생각해 보자
- ▲ 정리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삶이다 인간은 존재를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욕심

성경의 내용은 모두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것이다 누가 주인인가, 누가 답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핵심은 이러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그 권위와 본질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 자기를 실현할 것인가 인간이 결국 다른 것을 통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은 이런 무지와 불의에 대해 합당한 심판을 적절하게 시행하지 않으

신다

때로 우리가 시험이라고 이해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인간 스스로 자초한 것이고 실패의 결과일 뿐이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로 곤두박질치게 될 인간의 삶을 보존하기 위해 기적이나 우연을 동원 하신다 우리는 스스로 근본적인 질문을 가져야 한다 인간은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있는가, 진리를 가지고 결과를 만들 수 있는가 자기실현이 가능한가

모든 것이 욕심이다

사회적 관계나 조직의 문제는 대부분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다 자기가 주인되어 그 판세를 주도하려다 상황을 오히려 그르친다 하나님이 주신 정황을 인정하고 그 속

에서 나의 현실을 자각하면서 그 안에서 존재에 대한 이해,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그 정황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스스로 돌아보자

욕심을 내고 있지는 않는가, 상황을 내 방식대로 끌고 가고 있지는 않는가, 조급해하지는 않는가 인간의 의도가 개입된다는 것은 결국 상황에 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욕심이 아니다 오직 기다림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다

이연종 목사 한결교회 담임

신앙은 현실이다

신앙은 지식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삶이고 현실이며 위선이나 조작할 수 없는 실재다 제 아무리 고상하고 특별한 척 해도 인생은 홀로된 자기 시간 속에 고독을 해결해야 하고 존재의 부족함을 고스란히 깨닫고 실존으로 설명해야 한다 사람들이 그 많은 하나님을 믿는 세월을 보냈어도 채워지지 않는 존재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왜 지금도 우리가 가지려고 안달하는 것들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자살을 선택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문제는 무엇인가 인생은 그것이 아니어도 병들고 늙고 약해지며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맞이해야 한다

그 속에서의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결국 신앙은 자기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우리 스스로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이해를 놓친 결과다 인간은 막막함 속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갈등과 고민을 하고 심지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정체를 확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죄에 비참을 확인하는 것이 은혜이며 그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실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을 마치 인간적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본질을 오해하게 한 것이고 인생을 속이는 것이다

인생은 결국 존재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세월을

살아왔는가 삶은 당연히게 비참을 느껴야 한다 그런 존재로서의 자기를 확인해야 예수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신앙이 얼마나 우리의 실존을 뚫고 들어와 나를 살리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결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겪어내야 한다 신앙은 삶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다

이연종 목사 한결교회 담임

사설

목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미국의 교회들은 21C가 도래하기 전 21C를 예측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20년 동안 탁월하게 교회를 세우는 플랜팅 목사의 그룹이 주도적으로 형성network되었고 현재는 1.5플랜팅 세대planting generation까지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교회를 모델로 적용하고 접목하던 한국교회는 아직도 시작도 못 하고 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교회가 없다면 목사가 왜 필요하겠는가? 그러기에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 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할 한국교회의 중심인 총회(교단)와 교회 그리고 목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교회’the church, 누구에게는 별 것 아니고 누구에게는 전부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와 비밀 자체이다(엡5:25).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교회를 보여주셨다.

그렇지만 한국교회는 성경의 교회를 세우는 것,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위한 의식과 소명은 슬프리만큼 멀어져 가고 있다. 나는 반드시 목사에게 질문하고 싶은 한 가지, “당신은 정말 교회 세우길 원하는가?”라는 한마디이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안다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숨을 다해야 한다. 처치 플랜팅church planting은 무엇이고, 우리는 왜 그것을 해야만 하는가? 그동안 전혀 듣지 못했던 것의 어색함과 너무나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에 대한 두려움이 될 수도 있다.

J. D. 그리어Greear 목사는 간곡하게 말하길 개인에 대해서든 교회와 사역 단체에 대해서든 예수님의 부르심의 언젠가 와서 죽으라는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회생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단이 아닌 제단으로 먼저 부르신다고 했다. 제임스 맥도널드James McDonald 목사는 우리는 그러지 말자. 교회에서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중심에 모셔서 그분을 선포하고 예배하며 그분께 기도하자. 그리스도의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이 그분의 임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만 한다. 다시금 하나님을 교회의 얼굴로 내세워야 한다. 교회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

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요, 그분의 위대한 독생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곳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선포하자. 라고, 말했다.

팀 켈러Timothy Keller 목사는 설교가 세상의 젊은이들에게 강하게 끌리는 것은, 그들이 좋아하는 영화 영상을 보여주거나, 옷을 편하게 입거나, 세련되게 설교하기 때문이 아니다.

대신 설교자들이 그들의 마음과 문화를 잘 이해한다면 청중은 비록 설교의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교의 논리 전개에는 강하게 공감할 것이다. 이것은 스타일이나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다. 몇 년간 컨퍼런스를 하며, 리더며 교회가 열매 맺는 비결이 어떤 목회 프로그램을 사용했느냐하는 것보다 더 깊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라고, 말했다.

교의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교의 논리 전개에는 강하게 공감할 것이다. 이것은 스타일이나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다. 몇 년간 컨퍼런스를 하며, 리더며 교회가 열매 맺는 비결이 어떤 목회 프로그램을 사용했느냐하는 것보다 더 깊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라고, 말했다.

‘Church planting master plan’ 을 세우고 만들어서

당신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되게 하자.

목회단상

길을 잃은 왕자



김창성목사

포천시교회협동신문 이사

영국의 어느 왕자가 사냥을 나갔다가 정신없이 들짐승을 쫓던 왕자는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리저리 혼자서 헤매던 왕자는 다행스럽게 넓은 초원에서 양들을 치고 있는 한 목동을 만났다. 왕자는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그에게 길 안내를 부탁했다. “여보게, 나는 이 나라의 왕자일세, 지금쯤 모두가 나를 잃어버렸다고 난리가 났을 것이네, 그러니 어서 나를 마을로 안내해주게 나!” 그러자 그 목동은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했다. “안됩니다. 저는 지금 남의 집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양떼를 놔두고서 왕자님의 길을 안내할 수 없습니다.” 거절을 당한 왕자는 화가 났지만 자기 성질을 죽이고서 이렇게 제안을 했다. “자네가 지금 양을 치면서 받는 일당이 얼마인가? 자네가 나를 위해서 길을 안

내해 주면, 내가 그 대가의 3배를 주겠네!” 그런데도 목동은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왕자님,죄송합니다.저는 제게 맡겨진 양떼를 놓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왕자는 그 목동에게 총을 겨누면서 위협을 했다. “당장 내가 나를 안내하지 않으면,너를 이 자리에서 죽이겠다.” 목동은 여전히 똑같은 대답을 했다. “예, 제가 비록 이 자리에서 죽을 지언정,저는 왕자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왕자님에게 말로는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산들을 세 번 넘은 후에 서쪽으로 계곡을 따라 가면 마을로 가는 도로가 나옵니다.”

결국 왕자는 그가 일러주는 대로 혼자서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뒤에 왕자가 왕이 되었을 때,그는 그 목동을 불러서 자신의 신하로 삼았다. 비록 배운 것이 많지 않은 목동이었지만,그가 자신의 맡은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본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일에도 충성하는 법이다. 그래서 성서는 이렇게 교훈하신다. 마태복음 25장21절에서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할지어다”라고...

건강

아토피피부염의 피부·환경 관리 요령

대기가 건조해지고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철에는 피부가 건조해지는 등 알레르기 질환이 심해질 수 있다.

알레르기 질환은 외부환경에 대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함으로써 발생하는 질병으로,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이 대표적이다.

그 중에서 아토피피부염은 영유아기에 흔히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 증상으로는 심한 가려움증과 습진성 발진이 있고, 증상의 악화와 호전이 반복된다.

아토피피부염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환자마다 모두 다르지만, 피부와 환경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토피피부염의 악화를 막기 위한 피부보습과 청결유지 방법을 알아본다.

목욕 후 부드러운 수건으로 두드리듯이 물기를 닦아주고, 3분 이내에 보습제를 충분히 바른다.

보습제는 약물이 아니므로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하루에도 여러 번 사용하고, 정상적인 피부를 포함한 전신에 사용한다. 또한 피부 상태가 좋아졌다고 하여 사용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해서 사용한다.

보습제에는 오일, 로션, 크림, 연고제형 등이 있고, 다양한 제품이 존재한다. 여러 종류의 보습제를 한꺼번에 사용하실 필요는 없으며, 개개인 의 피부 특성이나 선호도, 환경적 요인, 도포횟수나 간격 등에 따라 보습제의 적절한 맞춤 선택이 필요하다.

차가 되는 카펫, 침대 매트리스, 천으로 된 소파, 커튼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침구류, 옷 등은 1~2주에 한번 55℃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하며, 세탁이 어려운 침구류는 집먼지진드기 항원이 통과되지 않는 특수 커버로 싸서 사용한다.

방 청소를 할 때는 집먼지진드기 항원을 걸러낼 수 있는 HEPA 필터가 부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동물의 털이나 비듬, 곰팡이, 바퀴벌레 등이 피부에 자극을 주는 항원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아토피피부염과 연관된 주요 식품으로는 계란, 우유, 콩, 땅콩, 밀, 생선 등이 있다. 무분별하게 식품을 제한하는 것은 아이들 성장에 매우 좋지 않으므로 반드시 피부과, 소 아청소년과, 알레르기내과 전문의의 진료와 검사를 받은 후 식품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

가족 중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모유 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유식의 시작은 6개월 이후로 미루며,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음식물의 섭취는 가능한 늦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

아토피피부염의 예방·관리 수칙

보습 및 피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목욕은 매일 미지근한 물로 20분 이내로 합니다.
- 매일 1회 목욕하고, 때를 밀면 안 됩니다.
- 보습제는 하루에 2번 이상, 목욕 후에는 3분 이내에 바릅니다.
- 땀이 잘 흡수되는 부드러운 소재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 손발톱을 짧게 깎도록 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적절한 실내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효과적이고 검증된 치료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도록 합니다.

대구광역시립어린이병원



아토피피부염의 피부 관리

목욕 혹은 샤워를 하루에 1회 정도 시행한다. 목적은 피부 표면에 존재하는 자극성 물질, 알레르겐, 세균 등을 제거하고, 외부로부터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목욕 혹은 샤워를 하는 횟수는 하루에 1회 정도가 적당하나 땀이 많이 나면 하루에 2회 할 수 있다. 물은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정도로 하여 사용하며, 때는 밀지 않는다. 비누는 약산성 보습 비누를 사용한다. 목욕 혹은 샤워를 하는 시간은 약 15~20분 정도이며, 너무 장시간 목욕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에 좋지 않다.

아토피피부염의 환경 관리

실내 습도는 40~50%, 온도는 18~23℃로 유지하면 좋다. 환자가 입는 옷, 환자의 피부와 직접 접촉이 이루어지는 수건, 베개 및 이불의 커버, 유아를 돌보는 보호자의 옷 등은 모두 면으로 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세제가 철저히 제거되도록 여러 번 헹구는 것이 좋다. 옷을 입을 때에는 약간 헐렁하게 입고 너무 꼭 끼는 옷은 피하는 것이 좋다. 집먼지진드기는 주로 습한 환경에서 잘 자라므로 실내 습도를 40~50%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집먼지진드기의 서식

이진숙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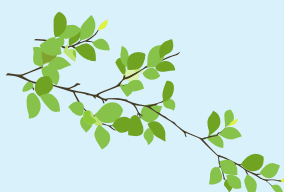
화가의 꿈



버려지고 밟혀서
길가 모퉁이에 숨어
보여도 보지 못하는
무심한 나무 조각들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
흔적을 비워내지도 못한 채
불품도 없고 쓸모도 없는
또 다른 나를 주워다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부활하는 꿈을 그리다
깨끗이 다듬고
정갈하게 옷을 입혀
네모난 평면 위에
입체적으로 살아나는
탈바꿈의 인생
투박한 부드러움 담긴
그림 속의 내가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눈들을 향해
편하게 말을 건다
언어에 갇히지 않은
그림 속 이야기들
자기만의 암호로 해독하며
눈으로 듣는다

산정호수

좁다란 오솔길이 뱀처럼
늘어진
수풀 사이를 지나
바람의 발자국 따라
헤집어 놓은 서랍장 속 같
은
어지러운 마음의 가닥들
빗질하며 걷다 보면
어느새 그 호숫가 앞자락
이다
한적한 고요 속을 유영하는
지느러미가 팔딱거리면
나이테처럼 늘어가는 물살
이
내 발밑까지 번져 온다
물빛 하늘도 품고
단단한 암벽을 껴안은
거대한 산도
물 속에 잠겨 있다
푸석하게 메말라가는
낙엽 부스러기 같은
내 심장도 이 곳에 오면
다시 푸드덕거린다



한국교회 미래 10년 교외세움

2020 Acts29 Church Planting Church 목회계획 컨퍼런스

CHURCH PLANTING
CONFERENCE

2019. 10. 10(목)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

2020년-2030년

목회계획 컨퍼런스는

미래목회 10년의 방향과 청사진과 함께 목회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자료들을 공유하며,
21C목회연구소 김두현 소장과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와 함께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speakers



김두현 소장

21C목회연구소



소강석 목사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21C목회연구소 처치플랜팅 목회자료

21C목회연구소에서 발행된 처치플랜팅 관련 도서자료 및 500여종 목회전문자료를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주최 21C목회연구소 후원 새에덴교회, 처치플닷컴

일시 : 2019. 10. 10(목) 10:00-4:00

장소 : 새에덴교회(소강석목사)

대상 : 목사, 목회자, 교회개척자 (선교사, 사모 등록비 50%)

등록비 : 2만원(중식포함, 교재별도) **선착순 1,000명**

계좌 : 국민은행 284-01-0006-051(21C목회연구소)

문의 : 031-896-1725~7, www.21cifm.com